



세계마스터십 우승자 서희주.

# '우슈여제' 전남 서희주 세계마스터십 '4연패'

## 우슈장권 우승...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대

'우슈여제' 서희주(전남우슈협회)가 세계마스터십 우승장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5일 전남우슈협회(회장 윤병용)에 따르면 서희주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 온라인 세계마스터십 우승장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희주는 표연경기(투로) 여자장권에서 275점

을 따내 1위에 올랐다. 서희주는 2016년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2021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 4연패를 달성했다. 윤병용 전남우슈협회장은 "서희주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무예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2021년에 이어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됐다. 한편, 우슈는 중국 고유 전통 무술의 하나로 흔히 중국 무협영화에서 보는 소림사 권법과 쿵푸, 십팔기, 태극권 등 중국 전통 무술 전체를 이르는 말이

다. 종목은 투로와 산수로 나뉘는데, 투로는 장권과 남권, 태극권, 도술, 곤술, 검술, 창술, 산타 등이 있다. 산수는 자유 대련으로 승부를 겨루는 종목이다. 서희주가 금메달을 따낸 장권은 동작이 크고 넓은 것이 특징으로, 마루운동과 같이 전신을 종합적으로 움직이며 그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 동작이 빠른 도와 기술과 발 기술 등을 포함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태극마크 향해 ...광주·전남 양궁선수들 전초전

## 26~27일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안산·최미선·이승윤 등 출전

광주·전남 양궁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기위한 전초전에 나선다. 대한양궁협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02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개최한다. 이 대회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광주·전남에서는 남자 7명, 여자 14명이 태극마크를 노린다. 현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 최미선(순천시청), 이승윤(남구청)은 태극마크 수성이 목표다.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은 지난 17일 4차 양궁월드컵 개인전 우승자 자격으로 생애 첫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 최고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2차 양궁월드컵 개인전 우승으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한 최미선도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광주 남자양궁을 대표하는 이승윤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체전 양궁 남자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최민선, 장유정(이상 광주시청)·'여고생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 등은 대표팀 복귀에 도전한다. 올해 광주여대를 졸업하는 김민서와 남구청에 입단한 새내기 정다원도 태극마크 장정에 합류한다. '조선대 4인방' 이진용, 김정훈, 유인선, 채진서와 광주체고 최우진, 조수해도 광주 양궁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전남에서는 2019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은경(순천시청), '순천대 3인방' 강수빈·김민영·박해운·남수현(순천여고)이 이름을 올렸다. 1차 선발전은 2022년도 국가대표 남녀 각 8명을 비롯해 올해 치러진 국내대회 개인전 1~3위 입상자, 기준기록(남자 1328점, 여자 1351점)을 통과한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출전한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차례 국가대표 선발전과 두 차례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러 리커브와 컴파운드 대표 선수 남녀 각 4명씩 총 16명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를 선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되면서 '매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를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표팀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강진군청 사이클팀 김민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값진 은'



2022 순천 아시아산악자전거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강진군청 김민오.

강진군청 사이클팀 김민오가 아시아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25일 전남자전거연맹(회장 정 동)에 따르면 김민오는 최근 순천에서 개최된 '2022 순천 아시아산악자전거 챔피언십' 엘리트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 용계산 MTB 경기장에서 진행된 남자 엘리트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각국을 대표하는 총 26명의 선수가 출전해 20.45km의 코스를 달렸다. MTB 국가대표 김민오의 결승 기록은 1시간 30분 05초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의 키타바야시 리키(1시간 29분30초)와 35초 차이가 났다. 인도네시아의 파나니 자에날은 1시간 30분 31초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인 권순우(경북체육회)와 김재홍(대구시자전거연맹)은 각각 6위와 13위를 차지했다. 같은날 열린 여자 엘리트 크로스컨트리 경기(16.45km)에서는 중국의 리 홍팡이 1위(1시간 23분 38초)에 올랐고 중국의 마 차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사를로바 알리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대론 절대 못 보내" 25일 질테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풋볼프로리그(NFL)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의 세이프티 데빈 맥커티가 시카고 베어스의 러닝백 카일 허버트를 강력한 태클로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영암서 열린다

## 영암군·대한씨름협회 협약식

영암군은 대한씨름협회와 '위드스제약 2023년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우승의 영암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이봉영 영암군체육회장, 김남수 영암군씨름협회장,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로 2023년 설날장사씨름대회는 내년

1월 18~23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남자 체급별 장사전(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 여자 체급별 장사전(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과 여자부 단체전을 치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추석장사씨름대회 당시 3만여 관중이 영암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워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단을 보유한 영암군에서 4년 만에 개최하는 메이저 대회인 만큼 내실 있게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환 기자 jbh@kwangju.co.kr

# 바둑 신진서 삼성화재배 '2전 3기' 도전

## '연간 최고 상금'도 켜지 주목

부동의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22) 9단이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신진서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27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에서 개인 통산 4번째 메이저 세계 기전 우승에 도전한다. 34개월 연속 국내 랭킹 1위를 지키는 '절대 1강' 신진서는 그동안 LG배에서 두 차례 우승하고 중국이 주최하는 춘란배에서도 정상에 올랐지만 유독 삼성화재배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신진서는 코로나19가 대확산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삼성화재배 결승에 올랐지만, 중국 랭킹 1위 커제와 결승 1국에서 충격적인 '마우스 오작동' 사고로 인해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신진서는 지난해에도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박정환 9단에 1승 2패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2전 3기'에 나서는 신진서에게 올해 삼성화재배에 대한 우승의지는 여는 대회와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올해 본선 첫 관문인 32강전에서 맞붙는 상대는 중국 랭킹 6위 미우팅이다.

신진서가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만약 정상에 오른다면 한국 바둑계에서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25일 현재 신진서의 올해 상금 누적액은 10억 9356만1319원이다. 기세를 몰아 삼성화재배에서도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3억원을 받는다면 신진서의 올해 누적 상금은 13억9000여만원으로 늘어날다. 2014년 이세돌 9단이 수립한 역대 연간 최고 상금 14억1033만7670만원에 불과 1670여만원 차이로 따라붙게 된다. 이 경우 올해 1승당 1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신진서가 남은 대국에서 한 두 판만 이기면 이세돌의 역대 최고 상금액을 새로 쓰게 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리멤버
2관	블랙 아담
3관	자백,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4관	자백
5관	리멤버
6관	자백
9관	리멤버,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7관 씨네케틀	블랙 아담, 스마일, 오판: 천사의 탄생
8관 씨네케틀	스마일, 인생은 아름다워, 오판: 천사의 탄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GAC기획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